다닥다닥 붙은 방 | 굳게 잠긴 비상구 | 작동 않는 소화기

광주 '위험한 고시원' 많다

소방 실태 점검… 4곳 중 1곳 불량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에서 일어난 방화·살인사건으로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난 것과 관련, 광주지역 상당수 고시원도 대형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오후 광주시 동구 A고시원. 건물 전체 중 한개 층이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곳에는 6.6㎡(2평) 남짓의 20여개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쪽방촌을 연상시켰다.

그러나 화재 등 비상시 탈출구 역할을 해야 할 비상구는 굳게 잠겨있었다. 불이 나면 꼼짝없이 변을 당하거나 10여m 높이의 창문을 통해 뛰어내릴 수 밖에 없었다. 복도는 어른 2명이 비켜가기 힘들 정도로 비좁았다.

같은 날 오후 광주시 북구 B고시원. 이 고시원의 비상구는 무용지물이었다. 화재가 발생해 전기가 끊겨도 비상구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등이 켜져있어야 하지만 유도등은 작동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유도등이 작동되지 않으면 비상시 고시원 입주자들이 정문으로 몰리면서 대참사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고시원의 경우 비상상황에 대비해 설치된 소화기는 기준압력에 미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다.

또 비상상황을 대비해 비상사다리를 외부에 설치해야 하나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사다리 입구를 철문 등으로 아예 막아버린 고시원도 적지 않았다.

광주시소방본부가 지난 8월 5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 5개 구청 고시원 142곳의 소방상태를 점검한 결과 36곳(25.4%)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시원 밀집지역인 전남대 인근이 관할 구역인 광주시 북구의 경우 점검대상 101곳 중 34곳의 소방시설이 부적합으로 조사됐으며, ▲동구 39곳 중 1곳 ▲광산 2곳 중 1곳이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동구 C고시원은 6~7층 통로의 유도등 불이 잘 켜지지 않아 시정 보완 명령을 받았다. 특히 이 고시원은 6층 비상구가 수시로 잠겨 있던 것으로 드러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북구 D고시원은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E고시원은 휴대용 조명 갯수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소방본부 관계자는 "고시원의 경우 관할 구청의 확인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방서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개업이 가능하지만 개업 이후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법률개정이 시급히 이뤄져 고시원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전남 방화 증가…올들어만 78건

동기 절반이 우발적·현실 불만

최근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사건으로 '묻지마 살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발생하는 방화사건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방화사건의 동기 중 절반은 우발적이거나 현실에 대한 일방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지방청별 방화사건 발생·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36건과 42건의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광주에서 36건, 전남에서 63건의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방화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난해 방화건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이 발행한 '2007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방화범 998명의 범행 동기를 분석한 결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386건, '현실 불만'이 108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다음은 가정불화와 95건, 호기심 32건, 보복 28건 등의 순이었다.

방화범의 정신상태는 주취 390건, 정신장애가 111건에 달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고, 방화범의 직업은 무직자가 3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안현주기자 ahj@

나주산림조합 비자금 조성 의혹

일용 근로자 통장에 알 수 없는 돈 입·출금

나주산림조합이 일용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입·출금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나주산림조합과 나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일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통장에서 알 수 없는 입·출금 내역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산림조합 근로자 20여 명은 작업반장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통장을 통해 조합 측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아왔으나 최근 이 통장에서 통장 개설자도 알 수 없는 1천만~2천만원의 입·출금 내역이 잇따라 확인됐다. 특히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여성의 통장에 1천만 원이 입금됐다가 빠져나간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경우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23회에 걸쳐 3천666만원이 입·출금됐으며 2006년 12월에는 B씨 통장에서 2천만원이 입·출금되는 등 근로자들의 통장에서 본인도 모르게 1억2천만원이 거래됐다.

경찰은 근로자 3명을 불러 경위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작업반장 등을 상대로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부풀려진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간벌이나 조림 등에 종사하는 일용직의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고시원 살인범 구속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 방화 살인범 정모(31)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15분께 논현동 D고시원에 있는 자신의 방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뒤 대피하려 복도로 나오는 투숙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6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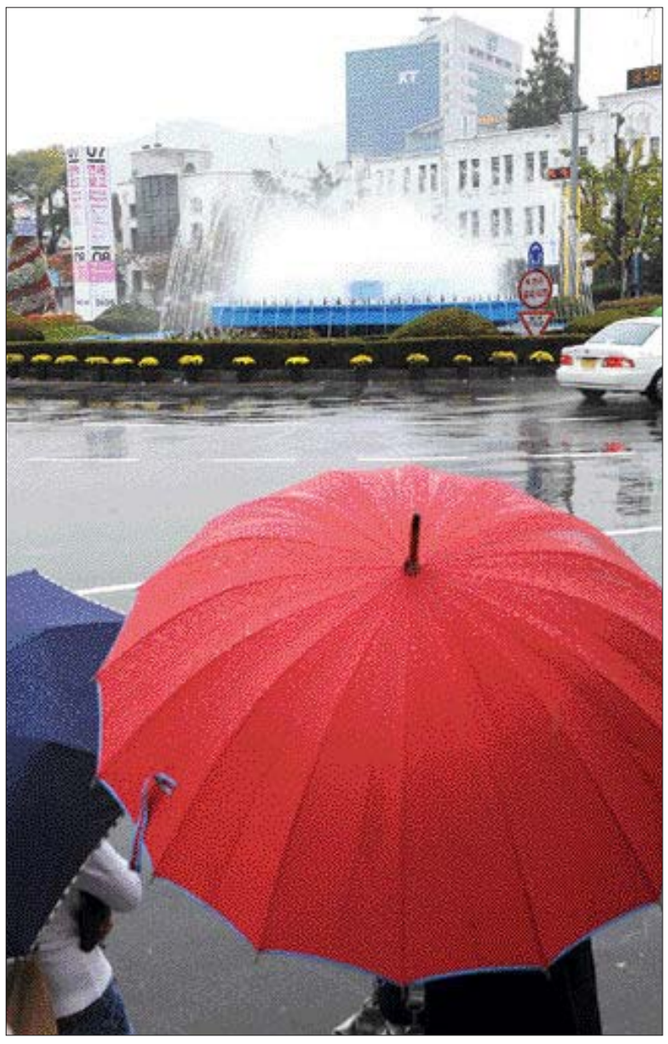
여자친구 성매매 시켜 남성 협박 금품 갈취

광주서부경찰은 22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성 매수 남성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A(17)군 등 3명을 공갈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5일 오후 4시20분께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연락된 회사원 B(35)씨를 여자친구인 C(15)양의 집으로 불러 12만원을 받고 C양과 성관계를 갖게한 뒤 곧바로 들이닥쳐 B씨를 협박해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일주일 후 B씨에게 "500만원을 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추가로 요구하다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비오는 날 분수라니… 극심한 가을 가뭄을 해갈하는 단비가 내린 2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가 때아닌 물을 뿜어내고 있다. 시민들은 도심의 청량제 역할을 해야 할 분수대가 무더위 속에서는 꿈쩍도 않다가 하필 비가 오는 날을 골라 가동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무신경 행정'을 비난했다. /위직량기자 jrwi@

방사선 판독 제대로 확인 안해 암 조치 게을리한 의사 벌금형

암 의심환자의 방사선 검사 판독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후 환자가 암 말기 상태가 됐다면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병주 판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화순 모 병원 내과전문의 A(36)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폐암이 의심돼 추가 검사가 필요했지만 A씨는 환자가자기 마음대로 퇴원한다는 이유로 방사선 검사 판독 결과를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면서 "피고인은 담당 의사로서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6년 6월 30일 고열과 복통, 설사 등의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온 B(여·56)씨를 상대로 혈액·소변·방사선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장염과 폐결핵 등이 의심된다"며 추가 검사를 위해 B씨에게 입원을 권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폐암이 의심된다'는 방사선 검사 판독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B씨가 2005년 받았던 방사건 검사 판독 소견서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의사 A씨는 "방사선 판독 결과는 입원한 지 하루 뒤 오전에 나왔고, 폐암 확진은 통상 1~2주가 걸리는 데 B씨는 입원 다음날 임의로 퇴원해버렸다"면서 "이번 판결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례를 규정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항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층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제작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술값 떼먹으려다 술잔 지문에 덜미

쌍나팔

○…광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도주한 30대 남성 3명이 술잔에 남은 지문 때문에 경찰에 덜미.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Y(30)씨 등 3명은 지난 9월14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모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 시가 50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후 종업원을 폭행하고 도주했다는 것.

○…Y씨 등은 이날 술을 마신 뒤 현금이 없다며 종업원 K(20)씨를 인근 편의점 현금 지급기 앞으로 유인해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술값 받을 생각 하지마라"며 폭행.

○…경찰은 Y씨 등이 마신 술잔에서 지문을 채취, 감식한 뒤 신원을 파악해 이들을 붙잡아 폭력행위 등으로 불구속 입건.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